

'임실N딸기' 지역 고소득 품목 우뚝

임실군 딸기 공선회 결산총회 가져... 44억원 역대 최고 매출 달성

임실군 대표 농특산물인 임실N딸기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농가의 고소득 효과 품목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군은 23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아련필름에서 김경보 공선회장을 비롯한 공선회원과 관계기관, 농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딸기 공선회 결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우수 공선회원과 신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하며 임실 딸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실 딸기 공선회는 지난 2012년 10농가에도 미치지 못했던 작은 조직에서 출발해 현재 29개 농가가 참여하는 대표 생산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고인 4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공동선별·공동출하 체계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임실은 해발 250~300m의 중산간 지형과 큰 일교차, 깨끗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당도와 식감이 뛰어난 딸기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자연환경에 더해 임실N딸기는 전량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기반으로 생산부터 선별, 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선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선별·공동출하 시스템을 구축해 균일한 품질과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편차가 적고 끝까지 신선한 딸기"라는 호평을 받으며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경

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육묘 지원과 농자재 지원, 공동선별 및 포장재 지원, GAP인증 확대 등 생산부터 선별·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임실 딸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써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1억원을 확보해 올해 1월 봉천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에는 딸기 재배하우스 10동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품질중심의 생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경쟁력을 높여 전국 최고의 명품딸기 산지로 도약하는 한편, 귀농귀촌과 연계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장류축제' 국제 홍보 확대

군, 해외 관광객 유치 나서

순창군이 2026년 예비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대상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교육 중인 지방정부 국제교류지역 5개국 공무원 연수생 13명을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 홍보를 실시했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5개국의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연수생들은 "전통역사 자원화 및 지역 6차산업화 정책 현장"을 주제로 순창군을 방문해 발효산업 정책 현장 견학과 장(醬)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순창의 대표 발효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순창군과 발효관광재단은 이날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순창의 발효산업 육성과 성장정책을 소개하고, 강천산군립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과 함께 제21회 순창



장류축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특히,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축제 기간 순창 방문과 각종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공무원 친절교육'

순창군이 군민 중심의 친절행정 실현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심리 이해를 통한 친절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를 주제로 2026년 상반기 친절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교육조아컨설팅 대표인 이정화 CS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고객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 응대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친절의 필요성과 고객 만족의 중요성을 다양한 현장 사

례를 통해 살펴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객과 1cm 더 가까워지기'를 주제로 공직자의 호감 가는 태도와 소통 방법, 긍정적인 민원 응대 전략 등을 공유하며 군민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모기 물림 예방 수칙 준수·예방접종 참여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질병관리청이 최근 대구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고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26. 6. 17.)함에 따라 시민에게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예방법은 △모기가 활동하는 여름철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밝은색 긴 옷, 돛이 넓은 옷 착용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및 모기 기피제 사용 △모기 서식지 제거를 위한 집 주변(물받이, 페타이어, 인공용기 등)의 고인 물 없애기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23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민선 9기 시정 현안 중점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와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시정 현안중점 해결 발빠른 대응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만나 지원 요청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양충모 시장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시정 현안 중점사업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2027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에 협조를 요청하고, 23일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민선 9기 시정 현안 중점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도지사 당선인의 협조와 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양 당선인은 국립의화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삼진강유역환경청 남원 유치 등 대형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이원택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개발 및 실증연계 핵심거점 구축 사업,

K-뷰티 수출거점 조성사업 등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의 남원시 공약사업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지원과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양 당선인이 요구한 남원시 시정 현안 중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 당선인은 "남원시 민선 9기는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제2 중앙 경찰학교 유치 등 획기적인 남원발전 내상을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도지사와 함께 남원발전과 더불어 전북 동부권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소년 진로콘서트' 열려

임실군은 지난 20일 청소년문화의집 광장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과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청소년진로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임실을 담아 대한민국을 그리다'란 주제로 임실지역의 청소년이 임실을 넘어 대한민국 일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역과의 소통과 체험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1부 진로직업체험은 지역의 체험처가 참여한 멘토와의 만남, VR·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체험, 청소년자치기구와 학부모가 참여한 나눔부스, 진로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진행한 진로직업체험부스에서는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홀랜드(HOLLAND) 진로검

사를 기반으로 직업체험처를 찾아가 직업전문가와 상담, 체험활동 등 진로와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다.

2부 기념식과 문화공연에서는 '청소년이 말한다.' 순서에서 청소년대표(정규희, 이건휘)의 미래와 임실에 대한 청소년 이야기를 해 주어 공감을 얻었으며, 이어서 마술, 댄스공연, 지역아동센터의 치어리딩, 특별초청팀 '서이브'의 공연은 문화활동이 부족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에게 풍족한 시간이 되었다.

/임실=진종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7-8월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남원시는 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에 불법 주기(駐機)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과 8월 2개월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덩크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골목 등에 장기간 주차되면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과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공동주택과 공원 주변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하고, 최초 적발된 건설기계에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반복 적발 시에는 횡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남원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덩크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로더,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038대이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귀농체험학교' 참가자 30일까지 모집

순창군은 도시민과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과 영농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순창군 귀농체험학교'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귀농체험학교는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순창군의 정주 여건과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순창 실랜드와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장 등 순창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24명 이내이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참가비 없이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그린데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